



동박새의 피서법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31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물허벅상을 찾은 동박새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동부 '폭염경보'... 무더위 피해 속출

서부지역엔 폭염주의보 양돈농가 폐사 등 잇따라

제주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등 무더위가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 현재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3℃, 외도 32.8℃, 구좌 34.7℃, 성산수산 32.8℃, 강정 31.6℃, 한림 32.7℃ 등 대부분 지역이 31℃ 이상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특히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제주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를 경보로 대치했으며, 폭염 주의보도 기존 북부지역 외에 서부 지역을 추가로 발령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9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양돈농가에서 돼지 2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31일 오후까지 총 3건·26마리의 축산피해가 일어났다. 온열질환자도 18명이 발생했다.

열대야 역시 제주시가 8일 연속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서귀포 5일, 고산 5일, 성산 3일 등으로 밤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송은범기자

제주도정, 8월 현안 해결 숨가쁜 행보

내년 국비확보·제2공항 공개토론회 개최 등 준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예의주시 속 조직개편도 착수
내일 하반기 정기인사 발표... 폭염도정 가열 전망

열흘 이상 30℃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을 맞는 제주도정은 국비확보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마련과 조직개편을 위한 숨가쁜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한창 내년 예산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계획된 국비확보를 위해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2020년도 국비사업은 총 800여건에 1조63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부처별로 검토 후 기재부로 제출된 규모는 1조4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2일 예산안의 국회제출 전까지 제주도의 내년

국비확보 전쟁은 8월 한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내년 국비사업을 보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247억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86억원) 등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와 전기차 구입 보조금(2254억원) 등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비확보 작업에 이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세입이 줄어들면서 조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는게 제주자치도의 입장이다. 올해 당초 예산인 5조 2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할 정도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적 경제여건 역시 녹록치 않아 힘든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는 8월에 첫 고비를 맞게 된다.

제2공항건설과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이달중 제주도에 걸쳐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성상유관단체협의회, 제2공항반대범민행동 등은 늦어도 이달 중순쯤 첫 토론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 의제는 제2공항의 필요성과 국토부 용역에 대한 평가, 갈등 해결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 공항

활용 혹은 제2공항 개발과 국토부 용역 등 제2공항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양국의 관계악화에 따른 대일 수출 감소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형편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8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의회 동의 도마에 오르는 조직개편 작업 역시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월 폭염속 뜨거운 제주도정은 2일 실시되는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새로운 진용에 갖춰지면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조성윤기자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
제주도, 20일까지 신청 접수

올 하반기 1800억원 규모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신청을 받는다.

현재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용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연장가능, 원금상환은 용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용자기간 내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오은지기자 eojh@ihalla.com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 '아른아른'

2018년산 제주 감귤 조수입 9402억 추계
2017년산 보다 0.6%↓... 2016년 比 3.2%↑

감귤조수입 1조원 시대 개막이 다시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18년산 감귤의 조수입은 9402억원으로 추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산 9458억원보다 0.6%가 감소했으나 2016년산 9114억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9000억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산 감귤 조수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감귤 총생산량은 60만7638t으로 2017년산 57만6722t에 비해 5.4% 증가했다.

노지온주 46만7600t, 하우스 온주 2만2898t, 월동온주 3만6977t, 만감류 8만163t이 생산됐다. 만감류 중 한라봉은 4만3822t, 천혜향 1만5943

t, 레드향 9522t 등이다.

감귤 총 조수입은 9402억원으로 2017년산 9458억원에 비해 0.6% 감소했다. 노지온주 5030억원, 하우스 810억원, 월동온주 893억원, 만감류 2669억원으로 산정됐다. 만감류 중 한라봉은 1316억원, 천혜향 613억원, 레드향 431억원, 황금향 11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산 감귤의 유통처리 여건을 보면 노지온주는 5월중 돌풍 등으로 결실과율이 증가했으나 가을철 기상여건이 양호해 평년에 비해 당산비가 좋았다.

지난해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극조생 감귤 자동화물 운송체계 전환 등 극조생 감귤 부패과 줄이기 노력과 기상여건이 뒷받침되면서 예년에 비

해 극조생 감귤 부패과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12월에 2L이상 대과 출하량 증가와 결점과 출하로 가격 내림세를 보여 2월 들어 감귤종사자들의 대과출하 자제의 노력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고 제주도는 분석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비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한 수제두부

순수한 두부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2F 수제두부전문점
1F 베이커리 카페

용담동 310-11번지,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는 반세기 동안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콩을 삶으며 두부 그 이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의 꿈, '순수한 두부'를 펼칩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해 매일 신선한 두부를 만들고, 그 순수한 두부로 두부식빵에서 보말 순두부 까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뭘 먹지?'하는 고민은 '순수한 두부'에게 맡겨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한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세기, 이 자리에서, '순수한 두부'가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건강한 한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동) T. 064) 747-1361